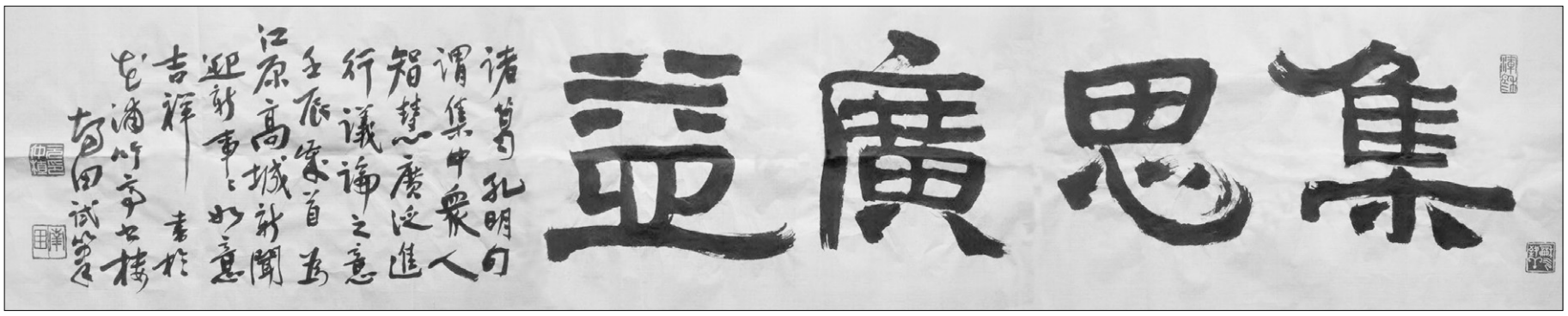


집 사 광 익

제갈공명 구위집중중인 지혜광범진 행의논지의 임진세수위 강원고성신문 영신사사여의 길상 행어 화포죽정서루 남전시필

제갈공명의 글귀에서 설명하기를,
'여러 사람이 모여 지혜를 내면 넓게 나아갈 수 있다' 고 했다.
이는 '의논(議論)하며 나아가라' 는 뜻이며, 임진 새해의 첫머리에 만들기를(바란다)
강원고성신문이 새로운 것(新年)을 맞이하여, 일마다 뜻을 같이하며
좋은 징조가 행하여질 것이다.
화포 죽정서루에서 남전이 시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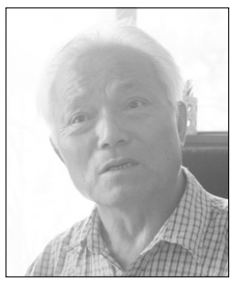
〈역주 : 김광섭 향토사학자〉

"생각을 모으면 더 큰 효과가 있다"

남전 원중식 선생 본지에 신년휘호 보내 … 제갈공명의 '집사광익'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죽정서루' 에서 50여년간 걸어온 서예 외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남전(南田) 원중식(元仲植) 선생(72세, 사진)이 임진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 '집사광익' 이라는 신년휘호를 보냈다.

집사광익은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 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공명이 쓴 글에서 유래됐다.



선생은 이 휘호를 통해 임진년 새해 고성신문의 편집방향이 '집사광익' 이란 글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더 큰 효과를 보기를 바라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했다.

한편 본지는 남전 선생이 보내준 이 휘호를 표구해 사무실 벽에 걸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창간 1 주년
GOSEONG WEEKLY NEWS

독자 손에 가기까지 6단계 과정 거쳐

고성신문 어떻게 만들어지나

취재 → 원고작성 → 편집 → 인쇄 →띠지작업 → 우편발송 → 독자

칼럼위원 · 시민기자들 무보수봉사 … 홈페이지 운영

고성지역 유일의 지역신문인 강원고성신문은 간성읍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취재와 원고작성 및 편집과정을 모두 완료한다.

이렇게 완성된 편집본은 매주 금요일 인터넷으로 서울 또는 경기도의 인쇄소에 파일 형태로 보내지고, 인쇄를 마친 신문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택배나 고속버스편으로 간성읍에 도착한다.

간성읍에 도착한 신문은 월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신문을 띠지에 끼우는 '띠지작업' 을 하고, 오전 11시 30분경 직원들이 간성우체국과 거진우체국까지 신문이 담긴 '낭' 을 갖다주면 집배원들이 독자들에게 배달한다.

고성지역 독자들은 화요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신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 등 외지 독자들은 목요일에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고성신문은 지면신문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ongnews.com, 검색창에 '강원고성신문')를 통해서도 기사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면보기' 코너에서는 지면 형태와 똑같은 면별 PDF를 무료로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화요일 오후에 기사가 올라간다.

고성신문의 지면을 구성하는 기사와 오피니언 원고들은 상근하는 편집국 직원들과 무보수로 봉사하는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필진으로 봉사하고 있는 칼럼위원은 김종식 전 동우대 부학장을 비롯해 한성수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 교수, 남숙희 시인, 이선국 토성면장, 황연옥 교사(시인), 박형수 변호사, 최금란 강원미술심리센터 소장, 김광섭 향토사학자 등이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간성읍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편집모습.

이들은 창간 초기부터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 육군중령 출신인 김정균씨와 고성문학회 남영선씨, 주부 김지연씨가 칼럼위원으로 합세해 현재는 모두 11명이다.

칼럼위원과 함께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하거나 제보를 통해 지면을 다양하게 꾸며주는 시민기자로는 백옥식(토성), 장공순(거진), 강성희(토성), 최돈불(죽왕), 김일용(거진), 박선애(현내), 김태극씨(토성) 등이 호라동하고 있다.

고성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칼럼위원과 시민기자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 오는 3월쯤에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알 림

창간 1주년 기념 간담회 안내

지난해 1월 31일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 이라는 창간이념으로 창간호를 내보낸 고성신문이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지는 창간 2년를 맞아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재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창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2012년 2월 7일, 낮 12시
-장 소 : 본사 사무실(간성읍 간성로 29)
-참석자 : 본사 임직원, 칼럼위원, 시민기자
-안 건 : 고성신문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방향

주식회사 고성신문
☎681-1666~7